

병영 돼지불고기거리 조성...강진의 新 관광명소 기대

공공시설물 설치 준공식...350m구간 특화거리

“지속적 관광객 찾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

강진군은 지난 24일 이승욱 군수를 비롯한 병영 사회단체장 및 마을이장, 관련 음식점대표와 면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영 돼지불고기거리 공공시설물 설치 준공식을 개최했다.

병영 돼지불고기거리 조성사업은 병영면 일원에 돼지고기 관련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작년 5월 전라남도 주관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에 공모, 선정돼 도비 5억 원, 군비 5억 원을 더해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거리 대표 조형물 및 거리 안내

판, 스토리텔링 안내판, 이용자 쉽터, 벽화, 포토존 설치, 노후 외벽 정비 등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개년 사업으로 드디어 결실을 이루게 됐다.

이날 준공식은 코로나19 상황의 정 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옥외행사로 간소화했다.

병영서가네 식당부터 세류교까지 약 350m 구간이 사업대상지로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암, 장흥, 강진읍 진입 방향의 거점 3곳에 병영 돼지불고기거리를 안내하는 거리 안내판을 설치했다. 병영 회전교차로에는 거리 안내 사인과 함께 대표 상징 돼지 조형물을 설치했다.

또한 음식거리의 중심지인 병영시장 입구에는 황금 소원돼지가 있는 소원돼지 포토존을 설치해 카메라에 담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했다.

기존의 버스정류장을 관광객과 군민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휴게 쉼터로 조성하고 관광안내도를 설치해 병영의 유적지, 관광지, 돼지불고기 취급음식점 등의 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도록 표시하는 등 이용 편의를 제공했다.

더불어 낙후된 병영시장 장육의 담배막 등 사업구간 내 노후 외벽에는 친근한 돼지벽화를 그려 자연스레 포토존의 역할이 되며 야간에 어둡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병영시장 장육에 야간조명을 설치하고 공용화장실을 개선해 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승욱 군수는 “민선7기 강진 관광의 청사진은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도시’이다. 한시적인 거리 조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병영 돼지불고기거리에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현재의 관광 추세·변화에 맞춰 불거리, 놀거리, 먹거리, 체험거리가 있는 강진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맛과 멋이 어



우러진 활기찬 거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 말했다. 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강진=김영일 기자

해남군, 전라남도 지역화폐 유통활성화 우수기관 선정



해남군이 전라남도 주관 2020년 지역화폐 유통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한 기관표창

으로, 2년 연속 전남도내 최대 발행·판매 시군으로서 지역화폐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해남군의 역할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해남사랑상품권

1,250억원을 발행, 현재까지 1,132억원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남에서 1,000억원 이상 판매한 시군은 해남군이 유일하며, 인구수 대비 사용자 비율도 가장 높아(36%) 생활형 상품권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천억대 판매 전남 유일...지역경제 활성화 역할 특출
내달 4일부터 카드형 상품권도 발행...한달간 10% 할인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전남 최초로 시행한 해남형 소상공인 등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농어민공익수당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기관·단체 구매일례에 등을 통해 군민들이 적극 참여해 온점이 상품권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해남군은 내년에는 해남사랑상품권 1,400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할인 행사 등을 지원할 국도비 104억 5,000만원도 확보한 상황이다.

특히 2021년 1월 4일부터 카드형 상품권도 발행되며, 이를 기념해 1월 한달동안 100만원 한도로, 10% 특별할인행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해남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거둘수 있었다”며 “내년 1월과 4월에 각각 발행되는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 군민 50%, 매일 50만원 구매 운동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 산재 재활 인증 의료기관 선정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장흥군 최초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재활 인증 의료기관에 선정됐다.

산재보험 재활 인증 의료기관은 산업 재해 노동자에게 집중 재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 능력 상실을 최소화하고, 빠른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재활 치료 관련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우수한 전문재활의료기관을 3년 단위로 평가 후 지정하는 제도이다.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은 다가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승인을 받았다.

장흥통합의료병원은 장흥군 안양면

에 위치해 있으며,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내과, 류마티스내과(순환 진료), 가정의학과(순환 진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활 치료가 가능한 재활 병동과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연하 장애 치료실, 인지장애 치료실, 가상현실 치료실, 통증도수 재활 치료실, 일상 생활 복귀 훈련실, 로봇 재활 치료 장비 등 산업 재해 환자의 기능 회복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전문 재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전남 지역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김도영 기자

강진군, 번개탄 판매업소 모니터링 자살예방 앞장

강진군이 번개탄 판매업소 12곳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생명사랑 실천가게 12개소를 선정해 포스터를 부착하고 번개탄 제공으로 군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내년도 지역 자원과 연계한 경관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도=김광수 기자

강진군보건소에서는 번개탄 구입 시 그 용도를 손님에게 물어보고 위험 징후가 보이는 경우 보건소와 경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올 한 해 동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신 판매업주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번개탄 판매업소와의 연계로 강진군의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군, 전남도 경관행정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안전한 비석거리·보행길 조성·간판개선 사업 등 좋은 평가

완도군이 '2020 전남도 경관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시·군 별로 경관·공공 디자인 분야 특수 시책 추진과

군은 '19년부터 올해까지 공모 사업 선정으로 총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도읍 일원에 추진 중인 ▲웃음을 새기는 안전한 비석거리 조성 사업, ▲웃음을 새기는 안전한 보행길 조성 사업, ▲비석거리 노후 옹벽 개선 및 상징 공간 조성 사업, ▲주도 문화거리 조성 간판개선 사

업 등이 이번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으로 군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내년도 지역 자원과 연계한 경관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도=김광수 기자

책과 함께 즐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